



남성고등학교 월간 대학입시정보

가솔인 비전을
행동인 품격을
새삼인 사랑을
(063)844-3813(교무실)
(063)859-9186(진학실)
(063)858-3908(Fax)

제2017-5월호

2017년 5월 19일(금)

솔밭안 기자단

조 단(10) 김서윤(7) 한정옥(10) 배성훈(8) 김현종(7) 정민호(10) 권준환(3) 김민규(3) 문청준(2) 정상용(6) 김재영(9) 최준혁(10)
김민준(5) 김 현(9) 이정인(9) 김형민(2) 박준휘(7) 양 건(7) 김규원(3) 임규진(1) 문서빈(6) 신동호(10) 배윤혁(3) 남현욱(8) 송건우(6)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의 진로탐색 4단계

C.O.N.T.E.N.T.S

입시 정보 지면 안내

-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의
진로탐색 4단계 / 1-4면
- 2019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총정리 / 4-6면
- 고 1·2 필독!-서울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 2019 대입 지
원전략 / 6-9면
- 쉬운 대입 사용 설명서
/ 9-10면
- 입면 대학이 보인다!-학교생
활기록부 항목별 특징과 준비
사항 / 10-16면
- 서울 중아위권대학 전형별 지
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성적
/ 16-18면
- 문이과 통합 내신 절대평가-
서울형 수능...교육 불 확 바뀐
다! / 18면
-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지원하
고 싶어요 / 19-20면

※ 본 자료는 언론 및 기타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으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입시정보란에 E-mail 및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자료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청소년 진로체험 박람회 [사진 제공=과천시]

어른들은 흔히 아이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니는 거니?”,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니?”라며 나무란다. 어른들의 걱정 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고는 아니다.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걱정 “또 잔소리한다.”라며 지겹다는 반응을 보인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의 고민을 근본부터 헤아리려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비판할 뿐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왜 학교를 다니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의 본분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니 따르기는 하지만,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이 공허한 삶을 이어갈 뿐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아이들은 비로소 ‘맹목적으로’ 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식을 가지고’ 잘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이런 ‘자기이해’가 바로 진로탐색의 출발점이다.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은 기성세대가 청소년이었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 기성세대는 적당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어렵지 않게 정규직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고, 한 직장에서 평생 고용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취업절벽이 가로놓인 현실 앞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진로는 장차 무슨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

또한 인생 성공의 기준을 놓고 볼 때도 과거 학생들과 현재 학생들의 시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였다면, 지금 학생들은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다.

결국 현재 청소년들에게 미래는 너무 멀게 느껴지고 엄혹한 현실이 자신에게도 곧 닥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려 하지 않는다. 공부하라고 노래하는 학교와 부모님 등쌀에 밀려 학교와 국영수 단과학원을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할 뿐이다.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채로 청년으로 자라난 학생들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공무원, 대기업 직원, 대기업 사원이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진로'이며 '행복해 지는 길'이라 믿고 취업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린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에 차지 않는 일자리는 거들떠보지 않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만 매달린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학생들이 진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로드맵을 충실히 그리고 실행해 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로 교육이다.

학생들이 진로의 의미를 깨닫고 명확한 계획 아래 진로를 개척해 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녀의 진로 탐색을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진로 고민을 상담해 주면서 함께 길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단계별 진로탐색 과정을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자녀와 대화를 시작해 보자.

[학부모가 알아야 할 '고등학생 자녀 진로탐색 4단계']

<1단계> 진로탐색의 시작, 자기이해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검사로 홀랜드검사, MBTI 검사, 애니어그램검사, 다중지능검사 등이 있다. 요즘은 많은 학교들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커리어넷 등 진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 가치관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를 할 수 있고, 적합한 진로, 직업 분야에 대해 탐색할 기회가 생긴다.

그런데 이런 현대식 검사법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로적성검사법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인간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자신의 성향과 소

질, 특성 등 사주팔자를 푸는 '명리학'이 그것이다.

사주명리는 흔히 말하는 '신점'과는 다르다. 신점이 행운과 관련한 '점괘'를 보는 것이라면, 사주명리는 수천 년간 누적된 인간 사주별 통계로 접근한다. 비슷한 예로 '지문검사'가 있다. 물론 사주명리든 지문검사든 신점이든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진로탐색에 있어 자기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돼야 할 과정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신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검사에서 공통된 소질과 특질을 찾았다면 독서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에 알맞은 진로를 자녀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대화와 격려를 아끼지 말자.

다만 진로 찾기의 첫 단추인 자기이해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긴 호흡으로 자기이해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자녀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길을 제시하자.

<2단계> 일과 직업을 이해하고, '일의 스펙트럼'을 파악하라

다음 단계는 '직업탐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이해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어떤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결정하기 위한 바탕작업으로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탐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일,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 있다면 이 단계는 절반 이상 완성된 셈이다. 하지만 진로탐색에 대한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직업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직업탐색이란 어떤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스펙트럼'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글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기자'라는 직업을 희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학생이 글쓰기 재능도 겸비했다 치면 언뜻 생각했을 때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나무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직업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업선택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기자'라는 직업에 글쓰기 능력은 기본이다. 하지만 수면 밑에 가시화되지 않은 문제들을 끄집어 올리고,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문제로써 인식될 수 있도록 이슈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각을 제시하려면 올바른 가치관도 확립돼 있어야 한다. 거기다 다양한 취재 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활동적이어야 하며, 불의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하다.

따라서 글쓰기를 좋아하더라도 기자라는 직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질 중에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낀 학생이라면 기자 대신 작가, 칼럼니스트, 카피라이터 등의 직업을 탐색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인 인터뷰

직업탐색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직업인 인터뷰를 통해 그 직업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현실적인 정보와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원하는 진로방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직업인을 인터뷰해 보는 것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직업'과 '일'을 명확히 구분 짓고, '일'의 구체성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를 내면 한 직업 당 길어야 서너 줄 정도밖에 적어내지 못한다. 직업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어떤 직업이든 직접 인터뷰를 하고 나면 이후 직업에 대해 작성하라고 했을 때 1페이지 분량 이상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직업인 인터뷰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역량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간접 경험이 된다. 따라서 직업인 인터뷰를 많이 해 볼수록 자신의 희망 진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족을 인터뷰하라!

직업인 인터뷰에 가장 좋은 대상은 바로 가족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며, 업무에 있어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또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님의 직업을 인터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직업과 일의 구분과 그 구체성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직업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종류의 직업도 생각해 보고, 차이점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과 일의 차이에 대해 아는 것이다. 하고 싶은 직업은 하고 싶은 일을 뿌리로 둔다. 그래서 하고 싶은 직업은 여러 번 바뀔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은 잘 바뀌지 않는다.

예컨대 금융과 관련한 일에 소질과 적성이 있고 흥미를 가진 학생이라면 직업으로 은행원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회계사를 목표로 수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 관련 일에 대한 소질과 적성은 전 생애에 걸쳐 거의 일관적으로 유지된다. 이처럼 직업과 일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녀의 직업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3단계> '일'과 시너지 낼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

현재 전국적으로는 1만여 개가 넘는 학과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전공별로 크게 나누어보면 130여 개로 추릴 수 있다. 학과란 교수 및 연구의 편의상 구분한 학술의 분과이고 전공은 자신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분야를 일컫는 말이다.

원하는 학과에 진학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나 적성 등의 이유로 사회에 나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업이 대학 입학 때 생각했던 직업과 달라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원래 하고 싶었던 직업보다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반대로 모두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서도 몇 달 다니지 못하고 관두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자신이 생각했던 일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초기 희망했던 직업과 최종 선택 직업이 다를 때 전공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전공은 나중에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야 현명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한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직업은 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공 선택 방법이다. 신중히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신도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다.

<4단계> 객관적 판단 아래 목표대학을 설정하라

전공 선택이 완료됐다면 남은 것은 목표 대학을 설정하는 일이다. 대학 진학이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최소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대학을 중도포기하고 재수를 하거나 힘들게 편입학을 하는 일이 없어진다. 인생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1~2년을 재수나 편입 공부에 허비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대학 선택에 있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교의 명성, 학비, 통학거리 순이다. 다시 말해 서울 명문대, 지방 국립대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학을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대학을 선택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특성과 성적에 가장 적합한 전형을 선택해 합격 가능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성적이 우수한지, 교과외 활동이 우수하면서 교과성적이 받쳐주는지, 논술실력이 있는지, 적성고사 준비를 잘했는지 등에 따라 대학 지원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현재 대입 전체 선발인원의 70% 이상을 선발하는 수시전형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교과전형과 달리, 내신과 함께 교

과활동, 교과외 활동 등 학교내 활동에 초점을 맞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영역 중 특히 전공적합성은 해당학과나 전공에 학생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어떤 노력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능한 일찍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방향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전공 선택이 빠를수록 해당 전공과 연관된 활동이 풍부해질 수 있고, 대학을 일찍 선택할수록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춰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5단계> 진로탐색, 다양한 강의와 독서로

진로탐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자녀 스스로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녀에게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로의 롤 모델을 만들도록 해 보자. 현재 많은 고등학교에서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회는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롤 모델과의 직접적인 만남 외에도 학생들은 독서 등의 간접체험을 통해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전 수능 위주의 교육과정 아래서는 학습에 밀려 독서의 가치가 다소 폄하됐지만, 대입 전형이 수시 위주로 재편되면서 독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올해부터 학생부 독서항목 기재 방법이 읽은 책명만을 적는 방식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독서를 소홀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학업능력은 물론 논리력과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등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로 독서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로탐색을 단계별로 알아보았다. 단과 학원 한 곳을 보낼 때도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발품을 들이면서, 정작 자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진로 탐색에는 무관심한 학부모라면 그 자녀는 그만큼 진로 앞에서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진로탐색이 하루아침에 똑딱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학부모들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녀의 진로탐색의 여정을 함께해 줘야 한다. 이런 시간들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 특징 총정리

전국 196개 4년제 대학교의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수시는 학생부위주전형,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 선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019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특징은

1. 수시 대세, 학생부 대세
2.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지속
3. 논술전형 지속적 모집인원 감소
4. 수능영어 절대평가로 최저학력기준 반영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주요 특징 정리입니다.

1. 전체 모집인원은 줄어 들고, 수시모집 선발비중은 늘었습니다.

1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모집 선발비중 소폭 증가

□ 전체 모집인원은 348,83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3,491명 감소

※ 2017학년도 355,745명 → 2018학년도 352,325명 → 2019학년도 348,834명

□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6.2% 선발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8,834명)의 76.2%인 265,862명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3.8%인 82,972명을 선발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9학년도	265,862	76.2	82,972	23.8	348,834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전형별로는

수시모집이 26만 5862명으로 76.2%

정시모집이 8만 2972명으로 23.8%로

수시모집 비율이 2.5% 늘었습니다.

1 전체 모집인원 감소, 수시모집 선발비중 소폭 증가

□ 전체 모집인원은 348,834명으로 2018학년도보다 3,491명 감소

※ 2017학년도 355,745명 → 2018학년도 352,325명 → 2019학년도 348,834명

□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2.5%p 증가한 76.2% 선발

-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8,834명)의 76.2%인 265,862명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3.8%인 82,972명을 선발

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9학년도	265,862	76.2	82,972	23.8	348,834
2018학년도	259,673	73.7	92,652	26.3	352,325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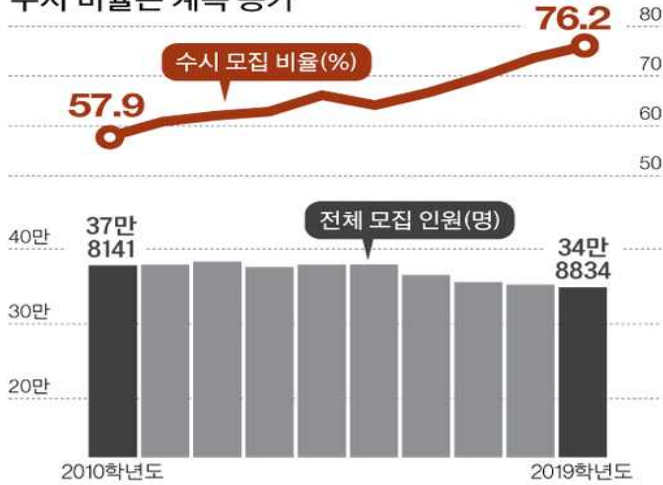
전형별로는

수시모집이 26만 5862명으로 76.2%

정시모집이 8만 2972명으로 23.8%로

수시모집 비율이 2.5% 늘었습니다.

매년 전체 모집 인원 줄어들지만
수시 비율은 계속 증가



대교협 발표자료를 토대로

2019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1. 전체 모집인원 (수시,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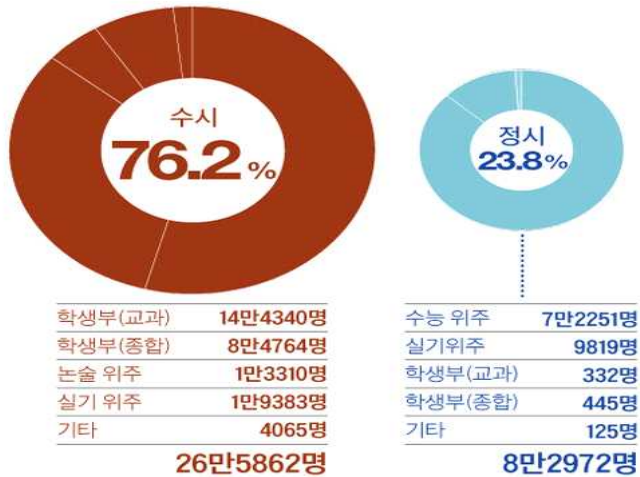
전체 모집 인원 : 352,325(2018) ⇒ 348,834(2019)

수시 모집 인원 : 259,673(2018) ⇒ 265,862(2019)

정시 모집 인원 : 92,652(2018) ⇒ 82,972(2019)

2019학년도 정시·수시 비율은

※총 모집 인원은 34만8834명



2.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인원 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지속 증가

□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2.0%p 증가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65.9%인 229,881명을 선발

※ 2017학년도 60.3% → 2018학년도 63.9% → 2019학년도 65.9%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4,340명(41.4%)	140,935명(40.0%)	141,292명(39.7%)
	학생부(종합)	84,764명(24.3%)	83,231명(23.6%)	72,101명(20.3%)
정시	학생부(교과)	332명(0.1%)	491명(0.1%)	437명(0.1%)
	학생부(종합)	445명(0.1%)	435명(0.1%)	671명(0.2%)
합계		229,881명(65.9%)	225,092명(63.9%)	214,501명(60.3%)

학생부 교과 : 140,935(40%) ⇒ 144,340(41.4%)

학생부 종합 : 83,231(23.6%) ⇒ 84,764(24.3%)

학생부 위주 전형은 2% 증가한 65.9%로 229,881명 선발

3.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3 수시는 학생부위주 전형,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안착

□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에 따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대입전형 안착

- 수시 모집인원 265,862명 중 229,104명(86.2%)을 학생부 전형으로 선발
- 정시 모집인원 82,972명 중 72,251명(87.1%)을 수능 전형으로 선발

구분	전형유형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4,340명(54.3%)	140,935명(54.3%)
	학생부(종합)	84,764명(31.9%)	83,231명(32.0%)
	논술 위주	13,310명(5.0%)	13,120명(5.1%)
	실기 위주	19,383명(7.3%)	18,466명(7.1%)
	기타	4,065명(1.5%)	3,921명(1.5%)
소계		265,862명(100.0%)	259,673명(100.0%)
정시	수능 위주	72,251명(87.1%)	80,311명(86.7%)
	실기 위주	9,819명(11.8%)	11,334명(12.2%)
	학생부(교과)	332명(0.4%)	491명(0.5%)
	학생부(종합)	445명(0.5%)	435명(0.5%)
	기타	125명(0.2%)	81명(0.1%)
소계		82,972명(100.0%)	92,652명(100.0%)
합계		348,834명	352,325명

수시의 66.2%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전형 선발

정시의 87.1%는 수능 위주 전형



夜探峰途輝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아옵니다.
최기



3. 논술 전형 모집인원은 약간 늘었지만 대학 평균모집인원은 줄었습니다.

4 대학별 논술 전형 평균 모집인원 지속 감소

◆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소폭 증가* 하였으나, 대학별 평균 모집 인원은 지속 감소

* 성신여자대학교(311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241명) 신설에 기인

※ 대학별 평균인원 : 2017학년도 495.4명 → 2018학년도 423.2명 → 2019학년도 403.3명

구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대학 수	모집인원
수시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30개교	14,861명
정시	0개교	0명	0개교	0명	0개교	0명
합계	33개교	13,310명	31개교	13,120명	30개교	14,861명



5.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과 6. 지역인재 전형 모집인원은 꾸준히 증가

5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지속 증가

□ 고른기회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전년대비 3,065명 증가

※ 2017학년도 33,083명 → 2018학년도 40,306명 → 2019학년도 43,371명

구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2017학년도
정원내	19,337명(5.5%)	16,500명(4.6%)	15,005명(4.2%)
정원외	24,034명(6.9%)	23,806명(6.8%)	24,078명(6.8%)
합계	43,371명(12.4%)	40,306명(11.4%)	39,083명(11.0%)



6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지속 증가

□ 지역인재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전형의 선발규모 확대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19학년도	81개교	13,299명	3.8%
2018학년도	81개교	10,931명	3.1%
2017학년도	81개교	10,120명	2.8%

7. 수능 영어 영역 반영방식

2018학년도부터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수능 영어영역은 최저학력기준 적용대학이 수시 83개교, 정시 12개교

정시에서 비율반영 대학은 180개교, 가점부여 대학 10개교, 감점부여 대학 4개교 입니다.

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반영방식은 대학별로 다양

□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수능시험 영어 영역은 수시 83개교, 정시 12개교가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며, 정시에서 180개교는 비율로 반영하고, 14개교는 가(감)점으로 반영함

모집시기	반영방법	대학수
수시	최저학력기준	83개교
정시		12개교
정시	비율반영	180개교
	가점부여	10개교
	감점부여	4개교

※ 일반전형 기준, 같은 대학 내 모집단위별 반영방법이 중복 산정

고 1·2 필독!
서울대, 한양대 등 11개 대학 2019 대입 지원 전략



▲ 한양대학교 [사진 제공=한양대]

수시 인원 중 61% 학종으로 선발

..논술 20%, 실기 11%, 학생부교과 8%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양대, 중앙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서울 지역 주요 11개 대학의 전형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11개 대학의 정원내 모집인원은 총 3만 5,403명으로, 수시에서 2만 6,204명(74.0%), 정시에서 9,199명(26.0%)을 각각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수시에서 265명이 증가하고, 정시에서 203명이 감소해 0.6%p가 정시에서 수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인문·자연계 구분 없이 지원 가능, 연세대-논술전형 '논술 100%' 반영

대학별로 살펴보면 중앙대는 수시 교과형으로 학교장 추천전형을 신설해 150명을 선발하며, 한양대는 수시 소프트웨어인재, 글로벌인재 선발 방법이 변경된다. 연세대는 종전 논술 70% + 학생부 30%로 선발했던 수시 논술전형을 2019년에는 논술 성적 100% 선발로 변경했다. 이화여대는 최근 논란이 많았던 수시 체육특기자 전형을 폐지했다.

서강대는 정시 모집에서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자연계 모집단위까지 교차 지원을 전면 허용해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통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립대는 수시 논술전형에서 고교추천제를 폐지했고, 경희대는 수시 실기우수자전형인 'K-SW인재'를 신설했다.

성균관대는 수시 의예과 선발에서 논술우수전형을 없애고 글로벌인재전형으로만 모집하며, 한국외대는 수시 고른기회전형II를 신설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은 2019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인원과 선발 방법이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의 전형별 특징을 보면, 서강대는 2021 통합형 수능 시행을 앞두고 자연계 모집단위까지 교차 지원을 전면 허용해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간 것이 눈에 띈다. 연세대는 학생부, 논술, 특기, 수능 등 다양한 전형 유형으로 선발하고 파격적으로 논술전형에서 논술 100%를 도입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은 수시 모든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며 우수 학생 선발에 학종이 주효한 전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전형별 장단점에 맞추어 학교 내신에 자신이 있는 경우는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 우위에 있는 학생들은 정시와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이 있는 전형 등에 초점을 두고 맞춤형 진학 전략을 짜는 게 좋다.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2019 모집시기별 선발 인원이 수시 모집 26만 5,862명(76.2%), 정시 모집 8만 2,972명(23.8%)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수시 모집 비율은 2.5%p 증가했고 정시 모집 비율은 2.5%p 감소했다.

■ 2019 주요 대학별 수시 및 정시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정원내)

대학	수시	정시	모집인원	수시 전형유형별 모집정원				정시 군별 정원		
				교과	종합	논술	특기(실기)	가군	나군	다군
서울대	2,498	684	3,182		2,498			684		
서울시립대	1,095	613	1,708	189	729	154	23	581	32	
경희대	3,354	1,390	4,744		2,223	770	361	696	702	
고려대	3,199	600	3,799		2,757		442		600	
서강대	1,262	320	1,582		882	346	34	320		
성균관대	2,654	705	3,359		1,596	895	163	330	375	
연세대	2,419	1,011	3,430		971	643	805		1,011	
이화여대	2,340	694	3,034	400	843	670	427	694		
중앙대	3,199	1,145	4,344	567	1,333	886	413	384	434	327
한국외대	2,222	1,185	3,407	546	994	546	122	285	600	300
한양대	1,962	852	2,814	298	1,076	378	210	287	565	
11개교	26,204	9,199	35,403	2,000	15,902	5,288	3,000	4,261	4,319	627
비교	25,939	9,402	35,341	2,034	15,493	5,349	3,063	4,251	4,437	714
(2018)	(73.4%)	(26.6%)	(100%)	(7.8%)	(59.7%)	(20.6%)	(11.8%)	(45.2%)	(47.2%)	(7.6%)

* 표 제공=종로학원하늘교육

수시 인원의 61% 학종으로 선발..논술 20%, 실기 11%, 학생부교과 8%

수시 전형 유형별로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이 11개교 1만 5,902명으로 수시 모집인원의 60.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논술전형이 9개교 5,288명(20.2%), 특기(실기)전형이 10개교 3천명(11.4%), 학생부 교과전형이 5개교 2,000명(7.6%)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409명 증가했고, 수시 전체 모집인원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도 1.0%p 상승했다.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2019 수시 전형유형별 선발 인원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이 14만 4,340명으로 수시 전체 모집인원(재외국민전형 제외 기준)의 55.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8만 4,764명(32.4%), 특기(실기)전형이 1만 9,383명(7.4%), 논술전형이 1만 3,310명(5.1%) 순이다. 학종 >논술 >특기 >학생부 교과 순인 서울지역 주요 11개 대학 결과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정시 모집군별로는 나군 모집이 고려대, 연세대 등 8개교 4,319명(정시 모집인원의 47.0%)으로 많았고, 가군은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9개교 4,261명(46.3%), 다군은 중앙대, 한국외대 2개교 627명(6.8%)으로 가장 적었다.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2019 정시 군별 선발 인원에서 나군 모집이 3만 1,070명(정시 모집인원의 37.4%)으로 가장 많았고, 가군 3만 743명(37.1%), 다군은 2만 1,159명(25.5%) 순이다.

서울지역 11개 주요 대학 2019 입시 대책

11개 주요 대학 모두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므로 내신(학생부 교과, 비교과) 또는 대학별고사(논술 등), 특기 능력이 있으면 수시를, 수능 성적이 뛰어나면 정시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수시 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 가운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1.3등급 이내로 월등히 높은 경우라면, 서울대는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연세대

는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고려대는 고교추천전형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주요 11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 주요 교과 평균 성적이 1.5등급 이내가 현실적인 지원선으로 보인다.

만약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 비교과 활동 실적이 우수하다면 주요 대학별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데, 비교과 활동 성적은 대체로 교과 내신을 최대 0.5등급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다.

내신이 상위 10~30% 이내에 드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면,

서울대는 수시 일반전형, 연세대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또는 특기자전형, 고려대는 일반전형 또는 특기자전형, 성균관대는 성균인재 또는 글로벌인재 전형, 서강대는 학생부종합 자기주도형 또는 일반형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학별로 고려대, 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 비중을 높인 대학이 있는데, 1단계 전형 통과시에는 2단계 면접에 맞춰 대학 및 전형 특성, 모집단위 등을 고려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내신이 2등급~5등급대이면서 논술 대비가 잘돼 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가 가능한 경우라면, 연세대 논술전형, 성균관대 논술우수자전형, 서강대 논술전형, 중앙대 논술전형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2019 주요 대학별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

대학명	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수]	한국사
서울대	인문	33.3	나/가 40	감점	사/과[2] 26.7	감점
	자연	33.3	가 40	감점	과[2] 26.7	감점
서울 시립대	인문I	30	나/가 30	25	사/과[2] 15	감점
	인문II	30	나/가 35	25	사/과[2] 10	감점
	자연	20	가30	20	과[2] 30	감점
경희대	인문	35	나 25	25	사[2] 20	5
	사회	25	가 35	25	사[2] 20	5
	자연	20	가 35	20	과[2] 25	5
고려대	인문	35.7	나/가 35.7	감점	사/과[2] 28.6	가산점
	자연	31.3	가 37.5	감점	과[2] 31.3	가산점
서강대	인문, 자연	34.3	가/나 46.9 (가형 10%)	가산점	사/과[2] 18.7	가산점
성균관대	인문	40	나/가 40	가산점	사/과[2] 20	가산점
	자연	25	가 40	가산점	과[2] 35	가산점
연세대	인문	33.3	나/가 33.3	16.7	사/과[2] 16.7	가산점
	자연	22.2	가 33.3	11.1	과[2] 33.3	가산점
이화여대	인문	25	나 25	25	사/과[2] 25	가산점
	자연	25	가 25	25	과[2] 25	가산점

중앙대	인문	40	나/가 40	가산점	사/과[2] 20	가산점
	자연	25	가 40	가산점	과[2] 35	가산점
한국외대	인문	30	나/가 30	20	사/과[2] 20	가산점
	자연	20	가 30	20	과[2] 30	가산점
한양대	인문	30	나 30	10	사[2] 30	감점
	자연	20	가 35	10	과[2] 35	감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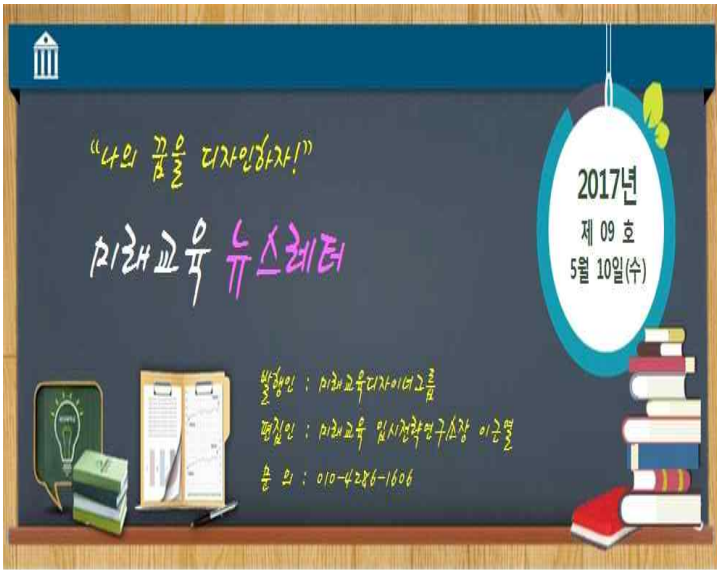
■ 2019 수능 영어 주요 대학별 정시 반영 방법

대학	계열	반영 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서울대	인문 자연	감점제	0	0	0	-0.4	-0.8	-1.2	-1.6	-2	-2.4
서울시 립대	인문 자연	감점제	0	0	0	0	-2	-4	-6	-8	-10
경희대	인문	비율 반영	200	200	200	195	190	185	180	175	170
	자연	비율 반영	200	200	200	200	194	188	182	176	170
고려대	인문	가산점	10	10	10	9.8	9.6	9.4	9.2	9	8
	자연	가산점	10	10	10	10	9.8	9.6	9.4	9.2	8
서강대	인문 자연	가산점	10	10	10	10	9.6	9.2	8.8	8.4	8
성균관 대	인문 자연	가산점	10	10	10	10	9	8	7	6	5
연세대	인문 자연	가산점	10	10	10	10	9.8	9.6	9.4	9.2	9
이화여 대	인문	가산점	10	10	10	9.8	9.6	9.4	9.2	9	8.5
	자연	가산점	10	10	10	10	9.8	9.6	9.4	9.2	8.5
중앙대	인문 자연	가산점	10	10	10	10	9.6	9.2	8.8	8.4	8
한국외 대	인문	가산점	10	10	10	9.8	9.6	9.4	9.2	9	8
	자연	필수 응시	PASS, FAIL처리								
한양대	인문	감점제	0	0	0	-0.1	-0.2	-0.3	-0.4	-0.5	-0.6
	자연	감점제	0	0	0	0	-0.1	-0.2	-0.3	-0.4	-0.5

■ 2019 수능 한국사 주요 대학별 정시 반영 방법

대학	계열	반영방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서울대	인문 자연	감점제	0	-0.5	-1	-1.5	-2	-2.5	-3	-3.5	-4
서울시 립대	인문 자연	감점제	0	-4	-8	-12	-16	-20	-24	-28	-32
경희대	인문 자연	비율반영	200	192	178	154	120	80	46	22	0
고려대	인문 자연	감점제	0	-1	-3	-5	-7	-9	-11	-13	-15
서강대	인문 자연	가산점	100	99	98	97	96	95	94	93	92
성균관 대	인문 자연	가산점	100	97	92	86	75	64	58	53	50
연세대	인문 자연	비율반영	100	95	87.5	75	60	40	25	12.5	5
이화여 대	인문 자연	비율반영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중앙대	인문 자연	가산점	20	19.5	18.5	17	15	12.5	9.5	5.5	0
한국외 대	인문	가산점	100	96	92	88	84	80	76	72	68
	자연	가산점	100	98	96	94	92	90	88	86	84
한양대	인문	비율반영	100	96	90	82	72	60	46	30	12
	자연	비율반영	100	98	94	88	80	70	58	44	28

* 표 제공=종로학원하늘교육



*** 쉬운 대입 사용 설명서 ***

1 「학생부종합」 전형 4부_2016 학생부종합전형 입시결과와 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또 한 가지 고민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이 가능할까?”이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이므로 정답에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학업역량의 기준에서 입사관들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의 ‘수성내력’, ‘교과관련 활동’, ‘교목별 세부’, ‘성적추이’ 등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나 입시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가능한지 가늠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2017학년도 수시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이므로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결과를 통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입시결과와 대입 설명회 자료 참고

★ 2018학년도 모집 방법에 따라 입시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원리 이해로만 활용해 주세요.

2015 vs 2016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인문								자연																		
		서울대, 일반		연세대, 학교생활우수자		고려대, 융합형인재				서울대, 일반		연세대, 학교생활우수자		고려대, 융합형인재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1등급	≤1.50	42.8	71.2	13.2	27.3	64.6	87.4	27.0	51.5	33.1	63.0	15.3	28.6	≤1.50	37.9	57.9	11.9	26.5	50.6	76.8	26.0	41.7	25.0	43.8	8.8	20.7
	≤1.99	33.8	25.0	48.1	36.4	21.2	9.7	30.7	21.2	36.9	29.6	36.9	57.1	≤1.99	38.8	29.9	40.1	36.7	27.1	16.1	29.5	33.3	41.8	43.8	35.6	34.5
	≤2.50	11.2	1.9	15.7	9.1	7.4	2.9	17.5	6.1	14.1	3.7	19.9	≤2.50	14.2	6.5	21.1	18.4	12.0	7.1	17.3	4.2	17.0	7.8	20.0	24.1	
2등급	≤2.99	6.2	1.9	6.4	6.1	4.1	5.8	3.0	8.6	3.7	9.7	7.1	≤2.99	5.4	4.7	12.8	4.1	6.1	8.1	4.2	9.7	4.7	11.2	6.9		
	≤3.50	2.0	8.5	15.2	1.1	9.0	6.1	4.1	6.8		≤3.50	2.3	0.9	7.7	8.2	1.6	9.8	8.3	2.9			11.7	10.3			
	≤3.99	1.3	5.5	6.1	0.4	5.3	6.1	0.7	7.4	7.1	≤3.99	0.6	5.3	6.1	0.7	6.4	8.3	1.7			10.2	3.4				
3등급	≤4.99	1.8	2.1	0.9	3.7	6.1	2.4	2.8		≤4.99	0.8	0.6	1.2	2.3	1.1	2.0										
	≥5.00	0.9	0.4	0.2	1.1		1.1			≥5.00	0.1	0.6	0.7	0.6	0.8	0.5										

2015학년도에 비해 2016학년도 합격자 내신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015학년도에는 2~4등급 대까지 합격자가 분포되어 있으나 2016학년도에는 3등급이하의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목고, 자사고 지원이 가능한 전형들도 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 등급대에서 떨어지는 특수한 사례도 눈에 띄어 보인다(특목고, 자사고의 등급 허용 범위로 보인다.)

서강대, 자기주도형								성균관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생부종합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지원	합격	합격									
1등급	≤1.50	25.0	35.3	3.5	10.0	31.1	47.6	10.4	14.0	12.4	44.8	2.8	10.0	≤1.50	13.7	26.1	5.2	37.5	25.1	40.7	11.0	8.1	13.4	33.6	5.8	16.1
	≤1.99	22.9	32.4	37.6	70.0	30.6	26.7	35.4	36.0	18.4	26.9	15.3	35.0	≤1.99	20.6	13.0	22.4	12.5	35.5	43.2	30.2	37.8	21.3	33.5	14.2	29.0
2등급	≤2.50	13.5	23.3	20.0	13.0	9.5	17.5	14.0	16.2	11.9	13.3	20.0	≤2.50	24.5	21.7	19.0	25.0	22.2	12.7	21.5	29.7	18.0	16.4	17.2	29.0	
	≤2.99	9.4	5.9	12.9	10.0	9.6	8.6	11.8	10.0	11.8	7.5	9.7	15.0	≤2.99	15.7	21.7	12.1	12.5	7.8	2.5	11.6	10.8	13.3	11.8	12.6	6.5
3등급	≤3.50	8.3	2.9	1.2	5.6	3.8	8.5	12.0	8.0	3.0	8.5	5.0	≤3.50	14.7	13.0	12.1	4.2	11.0	5.4	11.0			8.9	6.5		
	≤3.99	5.7	7.1	10.0	2.5	1.9	9.0	12.0	7.2	3.0	11.7	15.0	≤3.99	5.9	4.3	20.7	12.5	2.0	0.8	5.2	8.1	7.6	0.9	14.2	9.7	
4등급	≤4.99	10.4	12.9	6.3	1.9	5.7	2.0	15.5	3.0	19.4	≤4.99	2.0	6.9	2.9	5.8	9.2	0.9	15.4	3.2							
5등급	≥5.00	4.7	4.7	1.3	1.9	10.5	19.4	≥5.00	2.9	1.7	0.4	3.5	6.2	0.9	11.7	≥5.00	2.9	1.7								

인문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1등급	≤1.50	12.2	32.2	4.2	2.9	8.1
2등급	≤1.99	28.9	40.7	31.9	50.0	36.5
3등급	≤2.50	23.1	11.9	28.3	23.5	26.4
4등급	≤2.99	13.9	11.9	13.1	5.9	12.3
5등급	≤3.50	8.0	5.8	8.8	5.6	3.1
6등급	≤3.99	5.2	3.4	4.7	5.9	4.0
7등급	≤4.99	6.8	6.8	2.9	3.4	2.1
8등급	≥5.00	1.9	5.2	3.6	5.2	3.8

자연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1등급	≤1.50	11.7	20.0	6.0	3.6	8.4
2등급	≤1.99	23.0	43.3	26.9	50.0	33.9
3등급	≤2.50	30.9	23.3	29.9	25.0	28.7
4등급	≤2.99	15.7	11.7	10.4	3.6	14.6
5등급	≤3.50	7.0	1.7	11.9	10.7	7.9
6등급	≤3.99	4.3	6.0	3.6	3.0	8.8
7등급	≤4.99	4.3	6.7	3.6	2.2	5.3
8등급	≥5.00	2.6	2.2	1.2	2.9	2.1

이화여대는 1.5~1.99등급 대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보이며, 3점대 후반의 특수사례(인문)가 보인다.
중앙대는 1점대 초반은 적고 후반에 중심으로 몰려있다. 다빈지전형은 거의 3.5~4등급까지의 사례도 보인다.
경희대는 1점대 후반에서 2.5등급까지의 분포가 주이며, 그 이하 5등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인문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1등급	≤1.50	0.6	3.2	0.6	7.0	0.6
2등급	≤1.99	9.8	25.8	13.3	55.0	14.6
3등급	≤2.50	22.7	27.4	24.5	10.0	29.0
4등급	≤2.99	21.0	14.5	20.2	15.0	19.5
5등급	≤3.50	15.6	3.2	12.0	5.0	11.7
6등급	≤3.99	9.9	1.6	8.2	5.0	6.8
7등급	≤4.99	12.3	16.1	11.2	10.0	9.2
8등급	≥5.00	8.1	8.1	10.7	8.6	10.5

자연

구분	2016	2015	2016	2015	2016	2015
1등급	≤1.50	1.5	2.3	1.3	3.7	0.4
2등급	≤1.99	10.9	34.9	8.2	25.9	7.8
3등급	≤2.50	24.3	27.9	26.6	48.1	27.5
4등급	≤2.99	24.2	18.3	20.6	18.5	25.9
5등급	≤3.50	13.7	7.0	14.6	3.7	14.9
6등급	≤3.99	9.2	5.8	9.4	10.2	3.0
7등급	≤4.99	9.0	3.5	8.6	6.7	3.0
8등급	≥5.00	7.1	2.3	10.7	6.7	9.7

건국대는 1점대 후반에서 2.5등급 대까지 많이 몰려 있지만, 인문 자연 모두 분포가 넓음을 알 수 있다.
동국대는 인문 1점대 후반, 자연 2점대까지의 합격자가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숭실대는 인문 2등급 전후반, 자연 2점대 후반에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

- 2015(학생부종합 첫 해) vs 2016학년도의 내신을 비교해 볼 때 서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2015학년도에 비해 아무리 비교가 좋아도 기본적인 내신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알 수 있다.(특목고, 자사고라 해도...)
- 각 대학별로 특수사례(등급대 낮음 학생들)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정한 등급에서 절려는 대학과 넓은 성적분포를 보이는 대학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학을 선택하기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1) 학생부의 내신과 비교하여 비중을 어떻게 보는가? - 예) 한양대는 공식적으로는 내신을 보지 않는다.
 - (2) 고교프로파일(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고려되는가?
- 각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 공통점은 “단순히 내신만 보는 것이 학생부의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같이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마다 해석은 조금씩 다른 듯하다.

[학업역량 평가 방법]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고교소개 자료의 연관성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 학생부 : 내신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4. 수상내역(영양교육), 창의적체험활동(교과관련, 관심분야 활동), 8-1. 내신(등급 및 성적추이, 이수과목, 선택과목), 8-2.세특(관련과목에 대한 수업태도 및 능력), 9.특수(관련 교과 독서), 10. 종합평가의 내용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나 평가
- 자기소개서 : 자신이 의미(배움, 발전, 성장, 변화) 있었다고 생각하는 교과 및 활동의 사례
- 추천서 :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학생부, 자기소개서 연계)
- 학교소개자료(고교프로파일) : 개설 수업, 수업형태, 교재선택, 교과관련 대회 및 활동 등 확인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모델 비교

이근열소장의 진로★진학스토리

서울대

고려대

학업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평가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
졸업 후 고려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학생

중앙대

성균관대

참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의 정신을 갖춘 자율적 교양인, 실용적 전문인, 실험적 창조인인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실천적으로 참여·봉사하는 실천적 봉사인 개방적 문화인을 인재상으로 제시

인성을 핵심가치로 하며
① 소동역량 ② 인문역량 ③ 학문역량 ④ 글로벌역량
⑤ 창의역량 ⑥ 리더역량으로 유기적으로 구성

동국대 「Do Dream」 vs 「학교장추천인재」

성균관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관련 활동(교과 및 비교과)이 우수
학생 의지에 따른 지원

성실한 학교생활
교과활동과 비교과 활동의 균형잡힌 성장
고교 추천에 따른 지원(고교별 4명, 계열별 2명 이내 제한)

진로★진학스토리랜드 이근열 소장

남성고등작교 9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특징과 준비사항

2018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전체 모집정원의 23.6%(8만3천231명), 수시모집 인원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전년도에 비해 15.4%(1만1천130명) 증가한 인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전형요소는 무엇인가.

추천서는 폐지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추천서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공인어학 성적이나 수학·과학·외국어 등의 교외 수상실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 기록하는 경우 0점 또는 불합격 처리한다.

Q.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과정은.

A. 대부분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데, 주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해 일정 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과 면접점수 또는 면접 100%로 최종 선발한다.

1단계 서류평가에는 최소 2인 이상 평가자가 참여하며, 면접평가는 서류의 진위 확인 및 전공소양, 인성 등을 평가한다.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면접이나 심층면접은 실시하지 않지만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수험자의 사고의 깊이와 폭을 재단할 수 있는 것이 면접이다. 면접에 의해 1단계의 서류평가 성적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 알맞은 학생은.

A. ‘종합’이라는 말 그대로 개인의 특성과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분명한 진로목표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관심 분야에 열정을 쏟은 학생 ▶학생부 교과 성적, 교내활동(봉사·동아리·체험활동·수상실적 등)이 지원학과에 적합한 학생 ▶도전정신·적극성 등이 뛰어나 리더로서 인정받는 학생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학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몸소 실천한 학생 ▶독서나 비판적·분석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면접과 문제 해결 등에 자신 있는 학생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등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에 적합하다고 입학사정관들은 입을 모은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얼마나 중요한가? 다소 부족해도 괜찮은지?

A. 모든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이라는 전제를 제시한다. 이 ‘학교생활에 충실하다’는 말은 일단 학업에 충실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중요한 것은 학업수학능력이다. 그 기초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단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적이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점수보다는 성적 향상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일반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전공적성과 기초학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비교과는 잠재능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다음 6개 대학의 공통 평가 기준을 보면, 교과 성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건국대를 비롯한 6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공통기준과 용어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7학년도와 2018학년도 입시 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Q.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 등급이 아닌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A. 지적 호기심과 성숙도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중요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에 주목하자. 수업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단순한 등급으로 나타나는 성적 외에도 변화된 수업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활동을 담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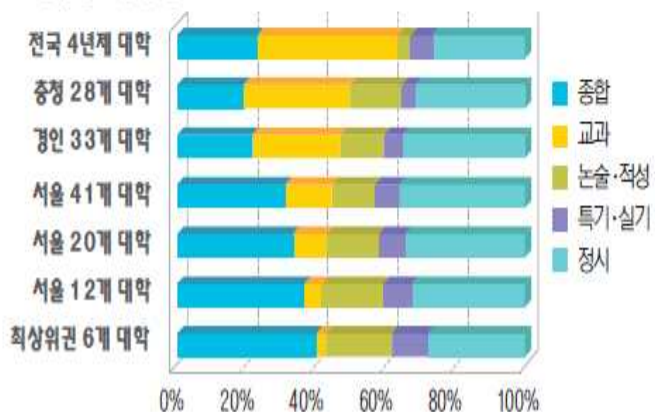
목받고 있다. 따라서 수행평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되새겨볼 때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학업 역량은 지적 호기심과 성숙도이다. 성숙도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깊은 성찰과 노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내신 성적의 등급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과활동의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 이에 적합한 활동이 바로 수행평가이다. 프로젝트 수업, 보고서, 토론, 프레젠테이션, 개인 발표, 공동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수행평가에서 지적 호기심은 물론 다양한 인성의 발휘도 포착할 수 있다.

■ 2018학년도 주요 대학과 전국 대학의 수시 및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비교

대학명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수시인원(정원내)
서울대	2,496	100%	2,496
고려대	2,307	73%	3,149
서강대	887	69%	1,283
경희대	2,083	63%	3,283
서울시립대	626	63%	989
연세대	809	33%	2,415
성균관대	1,507	57%	2,621
한양대	1,097	54%	1,037
중앙대(서울)	1,234	41%	2,987
이화여대	832	37%	2,276
한국외대(서울)	378	35%	1,094
소 계	14,256	37%	23,630
전국	83,231	23.6%	259,673

■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면 교과전형과 무엇이 다른가.

A. 교과전형은 교과 성적을 기계적·정량적 평가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의 추이와 학생부 전반에 스며있는 학생의 잠재력과 열정을 함께 평가하는 점이 다르다. 최근 교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의 엄밀한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물론 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을 예상하고자 하는 요구와 대학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만나서 초기 학생부종합전형이 보여 주던 내신 성적의 합격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대교협이 ‘어디가’를 비롯해 각 대학의 입학처 사이트에 게시되는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치를 보면 대학별 지원 등급의 폭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듯하다.

Q. 올해 특히 전형 변화에 주목해야 할 대학이 있나.

A. 몇 개 대학의 전형 변화가 눈에 띈다. 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동국대 등인데 전형을 대폭 수정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한 점이 두드러진다.

-고려대(안암):논술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인 일반전형을 신설해 1천207명을 선발한다. 또 2017학년도 학교장추천전형을 2018학년도에는 학생부교과전형인 고교추천 I (400명)과 학생부종합전형인 고교추천 II (1천100명)로 나눠 선발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됐다.

-동국대(서울):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했다.

-연세대(서울):역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하고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활용한 최저 없는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을 신설해 264명을 선발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인 학교활동우수자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집인원(474명)을 확대했다.

-서강대:학생부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2017학년도 642명에서 2018학년도에는 873명으로 231명 증가했다.

한양대·중앙대·경희대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이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큰 방향을 튼 학교들이다. ‘2018학년도 주요 대학과 전국 대학의 수시 선발 인원과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 표를 보면 주요대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의 비중을 알 수 있다.

■ 학생부 종합전형 및 교과전형 모집인원 변화 <대학교육협의회>				
구분	전형유형	2018학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0,935명(40.0%)	141,292명(39.7%)	140,181명(38.4%)
	학생부(종합)	83,231명(23.6%)	72,101명(20.3%)	67,631명(18.5%)
정시	학생부(교과)	491명(0.1%)	437명(0.1%)	434명(0.1%)
	학생부(종합)	435명(0.1%)	671명(0.2%)	1,412명(0.4%)
합계		225,092명(63.9%)	214,501명(60.3%)	209,658명(57.4%)

■ 주요대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고려대	일반	(인문) 3개 영역 등급 합 6 및 한국사 3등급 (자연) 4개 영역 등급 합 7 및 한국사 4등급 (의예과) 4개 영역 등급 합 5 및 한국사 4등급
	고교추천II	(인문) 3개 영역 등급 합 5 및 한국사 3등급 (자연) 3개 영역 등급 합 6 및 한국사 4등급 (의예과) 4개 영역 등급 합 5 및 한국사 4등급
서강대	일반형	3개 영역 각 2등급 및 한국사 4등급
연세대	활동우수형	국어, 수학, 탐구(2개 과목) 4개 과목 중 2개 과목 등급 합 4 (의예, 치의예) 국어, 수학, 탐구(2개 과목) 4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1등급
이화여대	미래인재	(인문, 자연) 2개 영역 등급 합 4 (의예과) 3개 영역 등급 합 3 (스크랜트학부 인문) 3개 영역 등급 합 4 (스크랜트학부 자연, 뇌인지과학) 3개 영역 등급 합 5 (디자인학부, 체육과학부) 3개 영역 등급 합 9

Q. 내신도 그다지 우수한 편이 아니고 학교에서 활동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원해도 될까.

A. 학생부종합전형만이 답은 아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됐고 전문대학에서도 종합전형을 확대하고 있는 편이라서 중위권 학생들이라 해도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 또 대학마다 인재상이 다르고 전형지표도 다르

니 내 자신의 학생부를 잘 살펴서 준비해 볼 만하다.

그러나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 표를 보면 주요 대학과 전국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비율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다른 전형의 비율도 만만치 않다. 내 성적대에 맞는 대학의 전형을 잘 살펴보고 어떤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이렇게 확대됐다고 해서 너도 나도 무조건 학생부종합전형만 바라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아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남아 있다. 내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가능한 전형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아 정시는 아예 포기한 상태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가 있다는데 걱정이다.

A.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수도권에서 의예과를 제외하면 8개 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 5곳 정도이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합·불에 큰 영향을 끼친다.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서울시내 5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 표본조사 결과 인문은 약 25%, 자연은 지원자의 40%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능을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비교과 활동이 다소 미흡해도 내신 성적이 합격 가능한 범위에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대학의 전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보다 개선 쪽으로 방향이 잡혀 가고 있고, 교육부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생부 기재 방안을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사의 주관적 관찰이나 평가 부분을 줄이고 활동 중심의 객관적 사실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지금 잘하는 학생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이다.

‘2016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마침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적 창조력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제 학생부종합전형의 개선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전형은 ‘학생부종합’이다. 영어 절대평가의 도입과 더불어 수능의 영향력이 줄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 전공학과 적응도, 중도 탈락률, 취업률, 학점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내놨다. 이 같은 이유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중위권 대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교과전형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입시전문가들은 국공립 대학들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만이 아닌 상대적으로 교과전형을 선호하던 중위권 학생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 관심을 갖고 학생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다. 학생부는 고교 3년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기록한다. 학생부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특징과 대학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의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기본을 든든히 하자! '인적사항·학적사항·출결상황'

학생부는 크게 기본·교과·비교과 등 항목으로 나뉜다. 교과·비교과 항목보다 인적·학적·출결 사항이 기록되는 기본 항목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대학들은 모든 항목들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 항목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기본 항목은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학생의 경우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되는 항목이다. 인적사항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생존 여부, 학적사항의 전·입학 여부 등은 차후 면접에서 질문을 통한 학생의 개인적 상황의 어려움과 극복 노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결 상황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무단 조퇴·결과·결석을 피해야 한다. 혹시라도 무단 출결이 있었다면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 줘야 한다. 출결 상황의 특기사항 기록도 평가자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 중요한 부분이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과 같은 학생부의 다른 항목들과 연관해 학생의 환경을 유추하고 학생의 극복 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 또한 매년 본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입학의 유무, 출결 상황의 학년 변화, 특기사항 기록 내용 등을 질문해 학생의 개인적 상황과 극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본항목:인적·학적·출결 상황 준비 Tip

-출결 상황은 학년이 진급할수록 긍정적 변화를 보여 줘야 한다.

-출결 특기사항은 평가자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다.

표1- 학생부 항목별 세부내용	
항목	세부 내용
인적사항	성명, 주소, 가족관계, 특기사항 등
학적사항	출신학교, 전출입, 편입, 복학, 재입학 등과 관련된 내용
출결상황	재학기간 중 출결상황을 질병/무단/가타로 구분한 횟수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교내 수상만 기록 (수상명, 등급, 참가대상 등 기록)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재학기간 중 기술 관련된 공인자격증의 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의 진로희망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의 시간과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학기별 이수 교과목의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학생의 독서활동 내용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가 기록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개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담임교사의 종합적 의견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수상 경력'

수상 경력은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평가기준에서 '표1'을 보듯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평가자 입장에서 학생의 교외 수상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기에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 경력의 중요도는 더욱 커진다. 수상명을 통해 대학의 성격을 파악하고, 등급과 참가 대상자를 통해 대학의 규모와 수상의 질을 파악한다.

교외 수상 기록이 금지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단위학교는 학생들에게 계열·전공별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의 변화를 예로 들면 2011년 20여 개의 교내 대회 개수가 현재 60여 개로 늘어났고, 대회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이것은 본교의 진학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내 대회 일정을 파악하자!

학생의 준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학생은 교내 대회의 종류와 참가 자격, 실시 시기 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교내 대회를 취합해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나 반 게시를 통해 공지한다. 출력·보관해 자신이 참가하고자 하는 대회의 실시 시기를 놓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한다. 간혹 학생들이 대회 실시일 또는 대회 준비물 제출일자가 지난 후 찾아와 참가할 수 없냐고 사정하는 경우가 있다. 교사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모든 교내 대회는 학교장의 결재 후에 공평하게 진행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사의 재량으로 구제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대회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참가 대회의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순위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대회로, 2순위는 공통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대회로, 3순위는 나머지 대회로 우선순위를 미리 정한 후에 차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꿈이 엔지니어라 기계공학을 전공하고자 한다면 1순위는 과학·수학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대회들이고, 2순위는 영어·글쓰기·말하기·토론 등 모든 전공에 필요한 공통 역량과 관련된 대회이다. 순위별로 시간 안배 및 노력이 달라지기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기적 결과를 평가하는 대회보단 일정한 주제에 대해 중장기적 탐구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가 평가자 입장에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는 자기소개서와 연결돼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가해 해당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수상에 의미를 담자!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전공 역량 관련 대회보다는 진로·인성과 관련된 대회에 참가해 수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좋다. 봉사·선행·모범상도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 학기 2회 수상자를 선정한다. 평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면접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수상 경력은 면접에서 중요한 질문거리가 된다. 평가자는 수상 경력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왜 대회에 참가했으며(참가 동기),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과정 노력), 차후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됐는지(추후 변화)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대회를 치르고 난 뒤 개인 포트폴리오나 블로그에 동기·노력·변화 등에 관해 짧게라도 기입해 놓는다면 3학년 면접 준비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수상 경력 준비사항 Tip

-1년간의 교내 대회 취합본을 획득하라!

실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시기를 알아 두자.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라!

순위별로 시간과 노력을 안배해 효과를 높이자.

-수상 내용에 의미를 담자!

면접에서는 상의 종류만이 아닌 수상 내용을 살피고, 수상의 동기와 과정을 통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로 인해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학생부와 공학이 맞는 자격증은 따로 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자격증·인증 취득 상황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 분야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주의할 것은 고교의 경우 재학 중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할 수 있다. 그 외의 각종 민간자격증과 국제공인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격증과 인증 취득은 일반적으로 권할 만하나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을 취득한다면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니다. 관심 있는 자격증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인가를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격증 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문계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 가능 자격증을 살펴보면 TESAT(경제이해력검증시험-한국경제신문사), 매경TEST(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매일경제신문사),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언어문화연구원), KBS한국어능력시험(KBS한국방송공사), 한국실용글쓰기검정(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정도다.

학생들은 무턱대고 자격증을 따고 보자는 생각보다는 해당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한 후 자신의 관심 정도나 지식의 깊이에 따라 자격증 준비 여부를 결정해서 준비해야 한다. 면접을 통해 대학평가자는 취득 동기나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확인해 볼 가능성이 크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준비사항 Tip

-학생부에 기재되는 자격증인지를 확인하자!

학생부에 기록 가능한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는 큐넷(www.q-net.or.kr) 사이트를 활용하자!

국가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증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

-희망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을 준비하자!

면접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어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표 2-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6개 대학 공통 서류평가 기준

평가요소	평가항목	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학업역량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보인 학업 능력과 수준)	·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탐구능력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적성과 학문적 발전가능성)	·적성과 소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진로 탐색 노력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인성 (배려· 나눔협력 등의 품성과 공감소통하는 능력)	·나눔과 배려 실천 ·팀워크와 협력 ·리더십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수상경력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발전가능성 (영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나갈 가능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환경극복 ·문화적 소양 ·경험의 다양성 ·전행 취지의 적합성	·학적사항 ·진로희망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부 활동의 허브 ‘진로 희망사항’

다른 학생부 활동대학평가자의 입장에서 진로 희망사항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기보단 학생부의 다른 세부 항목들과 연관지어 평가한다. 예를 들어 진로 희망사항에 기재된 희망 분야에 대한 탐색이나 노력 정도를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 상황 등에서 기재된 관련 분야의 독서활동 등으로 평가한다.

진로 희망 변경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진로 희망사항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좋겠지만 진로란 개인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이 학년이 바뀌면서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진로 희망 분야는 유동적이기에 바뀌는 것 자체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다만 바뀌게 된 구체적 이유가 없고 바뀐 후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통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희망 분야에 대한 주도성과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필자가 아는 학생의 예를 들면 1·2학년 때까지는 화학공학자, 신소재 개발자에서 3학년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시에는 건축공학을 지원했다. 이 학생은 2학년 겨울에 참가한 대학교 학과 체험 캠프와 지속적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진로 희망을 변경해 건축공학자로 지원했다.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화학 분야를 건축자재에 접목하고자 관련된 논문과 자료를 찾고 관련 도서를 기입해 학생

부에 있는 다른 항목에서도 변경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면접으로 보여 줘 좋은 결과를 얻었다.

▶진로 희망사항 준비사항 Tip

-진로 희망사항은 다른 학생부 세부 항목들과 연관지어야 한다!

진로·동아리·독서활동 등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계성을 보여 주라.

-진로 희망사항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뀐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반드시 해당 학년 학생부로 보여 준다.

비교과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다. 평가자는 이 항목을 통해 학교 프로그램의 특색, 학생의 참여 정도 등을 일차적으로 파악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의 4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성됐다. 동아리활동은 담당교사가, 나머지 3개 영역은 일반적으로 담임교사가 작성한다.

나의 역할을 보여 줄 수 있는 ‘자율활동’

자율활동 담당교사나 부서는 학생들의 개별 활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자는 소규모 학급활동 속에서 개개인이 어떠한 태도로 맡겨진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주목한다. 학생의 입장에서 각 활동마다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활동 전과 후의 변화, 활동 가운데 느끼고 새롭게 배운 점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각 활동이 끝난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학년 말에 담임교사에게 보여 주면 담임교사는 활동 과정 중 학생의 노력 정도나 배우고 성장한 부분을 다른 학생들과 차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차별화한 자율활동은 학교생활의 성실성, 적극성,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과 같은 인성적 태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생부를 돋보이게 만드는 멋진 컬래버레이션 ‘교육과정 동아리&자율동아리’

평가자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돼 있는지로 전공 적합성을 파악하고, 해당 동아리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리더십, 협력과 배려의 인성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동아리활동 수준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호기심, 탐구 역량 및 지식적인 깊이를 평가할 수 있다. 특기사항으로 학생의 열정을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은 자율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성격상 운영의 자유도가 크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의 학교를 예로 들면 자율동아리를 구성한 후 동아리 성격에 맞는 중·장기적 주제를 선정·탐구해 나가면서 팀별 주제 연구 프로젝트 대회를 준비한다. 학년 말 동아리 발표대회와 학술제까지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자율동아리 성격에 맞는 도서 리스트를 선정해 분기별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 K-MOOC(서울대·KAIST 등 국내 20여 개 대학이 운영하는 140개 이상의 온라인 무료 강좌)를 활용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바쁜 가운데 맘 흘린 가치가 더 크다 ‘봉사활동’

활동 시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평가자 입장에서선 일회성

봉사활동이나 방학 중 집중적이고 단기적인 활동보다 시간은 적더라도 학기 중 꾸준한 봉사활동에서 더욱 진실성이 느껴진다.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은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활동 가운데 얻어진 차별화된 스토리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의 질문 중 하나는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는 것이다. 봉사활동을 굳이 전공 분야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평가자의 관심사는 전공과 연관된 봉사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이 진짜 이뤄졌는가, 어떤 부분에서 개인의 성장이 이뤄졌는지이다.

꾸준한 탐색과 상세한 기록으로 차별화된 나만의 ‘진로활동’

지원자의 특기·적성과 관심 영역, 진로 계획을 확인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탐색 과정과 전공적 합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다. 특히 진로활동에 기록되는 내용과 학생부 진로 희망사항 영역 간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당 학년의 진로 희망사항과 관련된 진로·직업·학과 등 탐색이 꾸준히 진로활동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율활동의 경우처럼 진로활동 또한 학교의 진로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 학생의 차별화된 진로 탐색 과정을 학생부를 통해 평가자에게 보여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활동별로 꼼꼼한 개인별 기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평가요소	평가내용	학생부 주요평가영역
적성 (50%)	학업역량 및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활동 평가	4. 수상경력
인성 및 잠재력 (50%)	타인과의 소통, 협력,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역량, 여경국복역량 등 평가 ● 성장환경, 교육여건, 학습과정 등 고려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의 모습 평가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8-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나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교과학습 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대학 평가자는 이를 통해 3가지를 파악한다. 첫째는 학생의 각 과목에 대한 수준이고, 둘째는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의 정도, 마지막으로 학생이 각 과목별로 학업에 임하는 태도와 자세 등이다.

학생 수준을 가늠하는 지원 학과 관련 교과목 성적은 중요한 변수다. 평가자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의 경우 수학과 과학 과목, 그 중에서도 물리 과목의 성적을 먼저 본다. 이에 따라 시험 준비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정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세운 뒤 안배해야 한다. 학생의 참여도와 과목에 대한 호기심의 여부와 적극성 평가에서는 각 교과 교사가 작성하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한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에게 가장 많은 배움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과수업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교실은 프로젝트수업, 토론수업, 발표수업, 협력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고, 교과 교사는 이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기재 내용들을 통해 평가자는 대상 학생의 배움에 대한 태도, 열정, 호기심 정도를 면밀히 살핀다.

학생들은 교과학습 단위이나 주제를 타 활동과 연결해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과목 중 시장의 원리를 배울 때 평소 궁금했던 휴대전화 판매점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휴대전화 사용 주기, E-Waste(전기전자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 및 처리 방안 등에 관한 주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확장된 주제는 일차적으로 교과 수행평가에서 활용하거나 자율동아리 탐구 주제, 소논문 쓰기활동 주제나 학술제 발표자료 등으로 연계해 학생부에 역동성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유의사항은 특정 과목에 대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국·영·수·사·과는 상위권 등급을 유지하면서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어 등 교과목은 눈에 띄게 나쁜 등급의 학생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은 이과이니 국·영·수·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과목에 대해선 게을리하거나 좋지 않은 수업 태도의 학생도 봤다. 대학 평가자는 성실히 수업을 듣는다면 얻을 수 있는 등급보다 하위 등급을 받은 학생에 대해선 성실성과 수업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되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대학교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보는 ‘독서활동 상황’

학생의 지적 호기심의 넓이와 깊이를 파악하고, 관심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사고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특히 서울대는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을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독서활동이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독서활동 상황은 학교효과(학교에 따른 학생부의 유·불리)가 완전히 배제되는 항목이다. 경제적으로 지원이 풍부한 지역의 학생이든, 그렇지 못한 지역의 학생이든 책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독서활동 상황이 중요하게 작동한다. 2017학년도부터 독서활동 상황에 도서명과 저자명만 기록되게 됐다.

독서활동 상황은 면접 시 유용한 평가도구로 작용한다. 학생부에는 기록돼 있는 책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적어도 기재된 책의 주제는 무엇이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선 책을 읽고 미리미리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1학년 때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게, 2~3학년에는 희망 지원 학과와 관련해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현재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교과 학습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도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교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사추천서의 대체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사추천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이는 교과 교사가 기록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평가자가 볼 때 해당 학생의 평소 학업 및 생활태도와 인성적인 측면을 객관적이고도 입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항목으로서 충분히 교사추천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이를 숙지하고 평소 태도에서 진실되게 생활해야 한다.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담임교사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담임교사와 좋은 관계

■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요소	평가항목	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업역량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보인 학업 능력과 수준	학업성취도	수상경력		
	학업태도와 학업의지 자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탐구능력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번 항목 - 2번 항목	- 1번 항목 - 3번 항목
전공적합성 전공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적성과 학문적 발전가능성	적성과 소질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진로 탐색 노력 전공 관련 활동 경험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번 항목 - 2번 항목 - 4번 항목	- 1번 항목 - 2번 항목 - 3번 항목
인성 배려나눔능력 등의 품성과 공감 소통하는 능력	나눔과 배려 실천 팀워크와 협력 리더십 도덕성과 품성 성실성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수상경력 출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번 항목 - 3번 항목	- 2번 항목 - 3번 항목
발전가능성 형후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환경극복 문화적 소양 경험의 다양성 전통 취지의 적합성	학적사항 진로희망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번 항목 - 2번 항목 - 3번 항목 - 4번 항목	- 1번 항목 - 2번 항목 - 3번 항목

를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담임교사는 동료 교사의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의식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평소 생활에서 나눔과 배려,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 평가 요소인 학생부는 자신의 3년간 성장사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학교생활 가운데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과 계기, 그 속에서 얻게 된 깨달음과 변화 과정의 의미를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는 학년 말 학생부 기록의 진솔한 자료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자신의 성장사가 잘 묻어나는 학생부는 학생 개인의 학교생활 기록 측면뿐 아니라 상급 학교 진학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중하위권대학 전형별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성적

서울에는 4년제 대학으로 41개 일반 대학과 서울교육대, 그리고 특차대학인 육군사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고, 전문대학으로는 명지전문대.배화여대.서일대 등 9개 대학이 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한양사이버대 등 4년제 사이버대학과 백석문화예술대.서울종합예술학교.정화예술대 등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가 여럿이 있다.

예전부터 대학입시 현장에서 인서울 대학이라고 부르는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인서울 대학이라고 해서 소재지가 서울인 대학을 모두 일컫지는 않는다. 입시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건국대.동국대.홍익대.서울

교대 등을 인서울 대학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왜 이들 대학만 인서울 대학으로 보는지 의아해 할 수 있을 텐데, 이는 이들 15개 대학을 제외한 서울 소재 대학들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과 함께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민대·송실대·숙명여대 등에 지원 가능한 성적대의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살펴보면 학생의 출신 지역 및 고등학교와 연관이 없지 않지만, 수도권에 있는 단국대(죽전)·아주대·인하대 물론 경북대·부산대·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 대학과 함께 지원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별 지원 경향 때문에 인서울 대학이라고 할 때는 앞서 언급한 15개 대학으로 국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인서울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 지원 가능 성적은 대학과 모집단위, 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즉, 학생부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수능시험 성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편적으로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시 모집의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전형과 정시 모집의 수능 전형을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등급(대학 발표 자료 및 지원 가능 예측 성적 등을 종합하여 산정)으로 살펴본다.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경우 일반고와 특목고,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자 공히 '인문계 모집단위는 국어·영어·수학·사회교과 전과목 평균'(문과 평균)이 1.7등급 이내가 되어야 하고, '자연계 모집단위는 국어·영어·수학·과학교과 전과목 평균'(이과 평균)이 2.0등급 이내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반영하는 학생부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고 출신자의 경우 문과 평균 2.4등급 이내, 이과 평균 2.8등급 이내는 되어야 한다.

단, 학생부 교과 성적 이외의 수상 경력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뛰어나다면 그에 따라 지원 가능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은 낮더라도 지원해 볼 만 하다.. 한편,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자는 문과 평균 4.2등급 이내, 이과 평균 4.8등급 이내는 되어야 한다.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계 고교보다 지원 가능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은 것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좋을 듯싶다.

<논술전형>

논술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고사의 실질 반영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수능시험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면서 논술고사에 실력에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낮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과 평균은 3.4등급(특목고·자사고 5.2등급) 이내는 되어야 하고, 이과 평균은 3.8등급(특목고·자사고 5.6등급) 이내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연계 모집단위의 경우 대부분 수리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학교과 성적이 2등급(자사고 4등급) 이내는 되어야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다. 논술 전형으로 자연계 모집단위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이 점 꼭 기억하고 수학 공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능전형>

정시 모집에서만 실시하는 수능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함에 따라 학생부 교과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지 않으면서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요행에 불과할 수 있다.

이에 일반고 출신자의 경우 문과 평균은 3.5등급 이내, 이과 평균은 3.9등급 이내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특목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출신자는 문과 평균이 5.4등급 이내, 이과 평균이 6.2등급 이내는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전형 유형별로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은, 학생들이 어떤 전형 유형을 대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지원 가능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낮다면 그만큼 논술이나 수능시험 등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2학년 때까지의 학교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영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한 자신만의 수시 및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 실천했으면 한다. 특히 수능시험과 논술고사를 철저히 대비하면서 말이다.

■ 중상위권 대학 전형 유형별 지원 가능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 유형	지원 가능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등급 기준			
	인문계 모집단위		자연계 모집단위	
	일반고	특목고 등	일반고	특목고 등
학생부교과 전형	1.7등급	1.7등급	2.0등급	2.0등급
학생부종합 전형	2.4등급	4.2등급	2.8등급	4.8등급
논술 전형	3.4등급	5.2등급	3.8등급 (수학 2등급)	5.6등급 (수학 4등급)
수능 전형	3.5등급	5.4등급	3.9등급	6.2등급

주) 인문계는 학생부 국어·영어·수학·사회 교과 전과목, 자연계는 학생부 국어·영어·수학·과학 교과 전과목 기준임.

■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등급에 따른 전형 유형별 지원 고려 우선순위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등급	전형 유형별 지원 고려 우선순위					지원 고려 대학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 (적성)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1.5등급 이내	2		1	3	4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5 ~ 2.0등급	3		1	2	4	서울 상위권 대학
2.1 ~ 2.5등급	4		1	2	3	서울 중·상위권 대학
2.6 ~ 3.0등급	4		2	1	3	서울 중위권 대학
3.0 ~ 3.5등급	5	4	1	3	2	서울 중·하위권 및 수도권 상위권 대학
3.6 ~ 4.0등급	5	1	3	4	2	서울 하위권 및 수도권 중위권 대학
4.1 ~ 5.0등급	3	2			1	수도권 대학
5.1 ~ 6.0등급	2	3			1	수도권 및 충청권 대학
6.1 등급 이상	2				1	4년제 대학

주)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일반계 고교 학생 4년제 대학 지원 기준.

문·이과 통합

내신 절대평가-서술형 수능...교육 틀 확 바뀐다!

내년 고1부터 교육-입시 3대 변화 개정 교육과정 본격 시행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내년에 고교 1학년이 되면 고교 수업과 입시평가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고교과정에 적용되면서 문·이과가 통합되고, 학교 수업 과목과 수업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새 교육과정은 총 93개의 선택과목을 마련해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고르게 했다. 이에 따라 내신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고교생활 및 입시의 3대 축인 ‘수업, 내신, 수능’이 모두 바뀌면서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문·이과 통합, 신규 과목 등장

2015 새 교육과정은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의 문과와 이과 구분을 없앴다. 그 대신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이라고 불리는 7개 과목을 배운다. 공통과목을 배운 후에는 ‘선택과목’ 가운데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다. 대학처럼 스스로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야 하므로 중학교 때부터 미리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둬야 효율적인 과목 설계 및 일관성 있는 학생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공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비롯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이다. 통합사회는 기존의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등 4개 과목의 핵심 내용을 융합한 과목이며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과목이다.

이 과목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융합형 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통합사회의 단일별 핵심 개념은 ‘행복’ ‘인권’ ‘시장’ ‘정의’ 등으로, 교사의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 간 토론 등 다양한 생각의 개진을 유도한다.

공통과목을 배운 뒤에는 선택과목을 고르게 된다. 대체로 1

학년 때 공통과목을,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배울 가능성이 높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여행지리 △스포츠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가정과학 같은, 기존 세대는 구경조차 못 해본 진로 관련 선택과목 옵션이 19개나 새로 생겼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체 과목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뒤 수요 신청을 받아 교과를 구성한다.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과목 개설을 요청하면 해당 과목을 만들어줘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자가 적은 과목은 순회교사가 각 학교를 돌며 가르치거나 학생이 직접 인근 거점학교로 가서 듣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신 ‘완전 절대평가화’ 검토

이렇게 되면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더라도 A, B 학생이 고교 생활 동안 배운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같지만 이후에는 각자의 과목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월 고교 내신의 완전 절대평가화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둔 상태다.

최종 결과는 7월경 수능 개편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지만 일단 선택과목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로선택 과목 등에 대한 평가방식을 5단계 절대평가로 같지, 아니면 3단계 혹은 패스·페일의 2단계로 같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영수 등 공통과목 역시 ‘이상적으로는’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영수에 대한 석차 줄 세우기가 이뤄지면 새 교육과정의 핵심 취지인 ‘과정중심 평가’의 의미가 퇴색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은림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내신평가 방향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수능에 서술형 도입 가능성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크게 바뀌는 만큼 교육부는 현 중3이 수능을 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그 최종 결과를 7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수능 과목과 문항 수 등 기본적인 틀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수능자격고사화 △절대평가 확대부터 △서술형 문제 도입 △수능 시기와 횟수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안이 거론된다.

안연근 잠실여고 교사는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출제 범위”라며 “새 교육과정의 취지가 융합교육인 만큼 수능 범위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포함한 공통과목에 국한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은 국가 주도의 대입시험을 5지선다로 보는 유일한 나라”라며 “2021 수능부터 최초로 서술형 평가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3 학부모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내신 완전 절대평가가 이뤄지면 대학들의 특목고나 자사고 선호 현상이 뚜렷해져 일반고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같은 일반고라도 강남, 목동 등 교육특구의 일반고 출신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신과 수능 변별력이 모두 약해지면 대학별 고사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